

# 디자이너 유나양, 할리우드 사로잡은 성공법

피어리스  
유나양 지음



패션 바이블 'Women's Wear Daily'에 한국디자이너 최초 커버스토리 장식, '패션계의 오스카' 뉴욕 'Met Gala' 최초로 참여한 한국 디자이너, 20세기 폭스사, 조지 루카스 필름 등 미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사랑한 디자이너...



미래를 디자인하는 혁신가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의 갈라 의상 스케치(왼쪽)와 조덕현 작가 작품 '기억의 콜라주'에서 영감을 받은 웨딩 캡슐 컬렉션.



경력만으로도 화려한 이 디자이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패션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 'YUNA YANG'을 만들고 키워냈다. 바로 디자이너 유나양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을까.

한국 최초로 써 내려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유나양의 성공법을 담은 '피어리스'가 출간됐다. 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꾸은 일과 삶의 방식을 담고 있다. 제목 '피어리스' (fearless)는 두려움이 없는, 현실과 맞서는 담대함의 뜻을 지니고 있다.

저자인 유나양은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어학연수 차 머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운명처럼 패션을 만났다. 인스티튜트 마라곤디 디자인 코스를 수학과 영국 명품 브랜드들에서 경력을 쌓은 후 뉴욕으로 무대를 옮겨 2010년 자신의 이름을 건 'YUNA YANG'으로 뉴욕 패션위크에 데뷔했다. 이후 뉴욕 패션위크에 10년 연속 참여하고 '뉴욕 매거진' 9인의 디자이너 등에 선정됐다.

그의 팬으로는 톰모델이자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 그래미상 수상 가수 캐리 언더우드, 에미상 수상 배우 안나 건, 전설적 슈퍼모델 캐롤 알트 등이 있다.

뉴욕 패션위크에 데뷔할 당시만 해도 그는 편견에 시

달랐다. "포기해, 불가능한 일이야", "너 너무 이상해" 등과 같은 고정관념 차별이 심했다. 그럼에도 그는 "내 행복이 최고의 성공", "나만의 길을 만들어버리자"라는 신념으로 버텼다.

전 세계 수많은 디자이너 브랜드들과의 경쟁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도전을 해야 했다. "나만의 길을 갔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라는 말처럼 저자는 자신만의 영감과 창의성으로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갔다.

사실 그의 도전은 무모했다. 미국 패션계 인맥 제로, 든든한 배경도 없고 네이티브가 아닌 영어 실력, 모두가 안 된다고 그를 규정했다. 그러나 그는 업계에서 알려진 성공 문법을 뒤집고 뉴욕 패션계를 매료시켰다.

"내 인생이야. 내가 믿는 대로 용기 내고 도전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자."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대신 살게 내버려둘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나의 인생이었다. 그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다. 결과의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나는 나의 길에서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였다."

비결은 마음을 사로잡는 진심의 힘이었다. 또한 세상에 작은 일이 없다는, 시시한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임한 자세 덕분이었다. 그는 "웃은 스스로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또한 패션은 순위를 겨루는 분야가 아니므로 서로 다른 개성을 발휘해 새로운 콘셉트와 창조성을 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오서재·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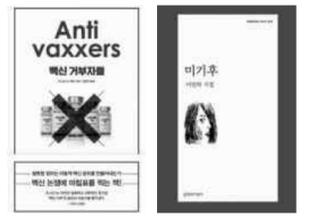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혐오없는 삶=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의 편집장 바스티안 베르브너는 혐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접촉'을 제안한다. 다른 계층에 대한 프레임에 깨고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정책이 의해 다른 사람과 많이 접촉해야 하며, 우파와 좌파, 빈자와 부자,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젊은 이민자 여성과 늙은 백인 남성 등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판미동·1만7000원>

▲불안한 사람들='오베라는 남자'를 쓴 프레드릭 베르만의 소설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며 우리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다. 나이만 들었을 뿐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 느끼며 가면들 쓰고 살아가느라 상처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며,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우리 모습을 규정할 수도, 미래를 좌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다산책방·1만5800원>

▲백신 거부자들=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의과대학 교수인 저자 조나단 M. 버만은 백신 접종은 질병과 싸우기 위해 개발된 기술 중 가장 효과적이며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는 유일한 기술로서 독특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랜 세월 지속돼온 '백신 거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극복 방안을 소개한다. <이상북스·1만8000원>



▲미기후=전위시의 대표 주자로 낮은 세상을 열어 보이는 시인 이민하의 다섯 번째 시집으로 시편 63편이 수록됐다. 제목 '미기후'는 아주 작은 범위 내의 기후를 일컫는 말로서, 흔히 지면에서 1.5m 정도 높이까지를 측정 대상으로 한다. 시집에서 '미기후'의 제목은 '피의 날'이라고 부를 만큼 폭력적인 시간들을 견뎌온 여성들이 "어디지 낮익은" 서로를 발견할 때 시작된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스마트폰 전쟁=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교장 선생님과 스마트폰과 떨어질 수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어린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토론하며 어떻게 스마트폰을 절제해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하며, 책 말미에는 스마트폰 중독 자가 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도움말도 실었다. <크레용하우스·1만2000원>

▲마음이 살아나라=학교는 지루하고, 체육 시간은 귀찮고, 친구 사귀는 건 어렵고, 오로지 게임만 재미있는 도연이. 집에 와도 밥은 혼자 먹어야 하고 늦게 들어 온 엄마는 부라부라 집안일을 해 치우느라 정신이 없다. 도연이는 엄마한테 투정도 부리고 싶지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책은 도연이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길고 어두운 마음의 터널을 건너가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넨다. <노란돼지·1만5000원>

▲바다가 얼룩져요=바다에서 일어나는 기름 유출 사고를 다룬 그림책이다. 일러스트레이터 다니엘 콘도는 온 바다를 뒤덮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다의 푸른 색과 기름의 검은색의 뚜렷한 색상 대비로 강렬하게 표현했다. 글 작가 길레르미 곤티오 플로레스는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바다를 살리고 생계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힘을 모을 것을 이야기한다. <한울림어린이·1만5000원>

# 시인의 눈으로 본 예술작품...시와 예술 사이 작은길을 만들다

예술의 주름들  
나희덕 지음



시인은 그의 노래에 대해 "들려오기보다는 불어온다"고 표현했다. "몸 전체로 스며들어와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했다. '울고 있나/아, 그러나/당신은/행복한 사람' 책에 실린 가사를 따라 낯겨 불러보는 노래 '행복한 사람'. 가수 조동진을 그는 '공기의 시인'이라 명명했다.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만 같은 조각상 '걸어가는 사람들'. 자코메티의 대표작을 보며 시인은 "그걸 만지면 삶의 온갖 고통과 슬픔이 손끝에서 묻어날 것만 같다"고 말한다. 광주 출신 작가 정영창의 초상화 작품에 대해서는 "세계에 대한 낙관과 비판을 동시에 품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문규현 신부와 윤상원 열사의 초상화를

소개한다. 나희덕 시인의 새 책 '예술의 주름들'에는 '감각을 일깨우는 시인의 예술 읽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에세이집을 낼 때 직접 찍은 사진을 싣고, 여행의 순간들을 모은 사진전을 열기도 했던 시인의 섬세한 시각과 깊은 사색으로 그려낸 '예술의 초상'은 깊은 울림을 준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문학이 아닌 다른 예술 언어에 대해 내 안의 시적 자아가 감응한 기록이다. 시와 예술 사이에 작은 길 하나를 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예술이란 얼마나 많은 주름을 거느리고 있는가. 우리 몸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주름과 상처가 있는가"라고도 덧붙였다.

책을 읽다보면 시인의 글에 등장하는 글렌 굴드와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다시 듣고 싶고, 마크 로스코와 마리 로랑생의 그림도 다시 찾아보고 싶어진다. 한 철학 작가나 영화감독 클라우디아 요사의 영화를 '새롭게 알게 된 건 또 다른 예술여행의 출발이라 반갑다. 시인은 생태적 인식과 실천, 여성주의적 정체성 찾기 등 5부로 나눠 영화감독, 화가, 가수, 작곡가 등 모두 30명의 예술가를 호명하고,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

를 들려준다. 시인은 롤랑 바르트의 '에도일기'를 읽다 꺼내든 한 철학 작가의 사진집 '엄마, 사라지자마'를 보며 팔순이 넘은 자신의 '엄마'를 떠올린다. "엄마의 어떤 표정과 자태가 문득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오랜 시간의 빛과 그림자를 견뎌내면서 생겨난 그 무늬와 질감을 가만히 쓰다듬어 보게"되는 것이다.

시인의 '눈'은 타 장르에 스며 있는 '시의 기운'을 놓치지 않고 포착한다. 호크니 전시에서 그는 윌리스 스티븐스의 장시 '푸른 기타를 든 남자'에서 영감을 받은 '푸른 기타' 연작에 눈길을 돌린다. 또 에즈라 파운드의 장시 '휴 쉘먼 모베리'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때리 작가의 작품전 '시배달'과 반복적 일상의 틈에서 매일 시를 쓰는 23번 버스기사의 이야기를 담은 짐 자무쉬 감독의 영화 '패더슨'에 담긴 시의 이야기도 풀어낸다.

책에서 만나는 또 다른 예술가는 아녜스 바르타, 케테 콜비츠, 고야, 김인경, 묵수 김씨 등이다. <마음산책·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